

제 10 차 대 한 두 경 부 종 양 학 회

■ 연 세 초 록 ■

1

국소진행 두경부종양에서 보조화학요법의 효과

연세의대 내과, 치료방사선과,* 연세 암센터**

김철우 · 노재경 · 이 석 · 안중배
박형천 · 이경희 · 이해란 · 최진혁
유내춘 · 임호영 · 김주항 · 서창욱*
김귀언* · 노준규* · 김병수**

국소진행 두경부종양은 방사선치료 및 수술등의 국소요법이 주된 치료이나 국소재발 및 원격전이가 흔하다. 최근 국소요법전에 선행약물요법을 시행하여 국소요법의 효과상승 및 원격전이를 감소시키고 보조화학요법을 추가하여 국소요법후의미소잔류병소 및 원격미세병소를 제거하여 관해지속기간과 생존율을 높이려는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.

이에 저자들은 1986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 병원 및 연세 암센터에 내원하여 국소진행 두경부암으로 확진된 환자 가운데 과거치료력이 없는 45명중 선행약물요법(5-FU 1000mg/m² day 1~5, Cisplatin 100mg/m² day 1 q 3 week for 2~3 cycle), 방사선 치료 및 수술등의 국소요법, 그리고 보조화학요법(5-FU 1000 mg/m² day 1~5, Cisplatin 100mg/m² day 1 q 3 week for 3 cycle)을 시행한 18예(A군)와 선행약물요법 및 국소요법만 시행하고 추시관찰한 27예(B군)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) 전체 대상환자는 45명으로 남자 40예, 여자 5예(비 8 : 1)이었으며, 중앙연령은 56세(25~77세)였다.

2) 원발부위는 비인강암이 25예(55.5%), 구강암

10예(22.2%), 후두암 및 하인강암 5예(11.1%), 부비동암 3예(6.7%), 구인강암 2예(4.5%)이었다. 세포형은편평상피암 25예(55.5%), 미분화성암 20예(44.5%)였고, 병기는 A군이 전례가 IV였고, B군은 III가 5예, IV가 22예였다.

3) 전체 대상환자에서 선행약물요법후 완전관해는 7예(15.4%), 부분관해 30예(67%), 안정성 병변 7예(15.4%), 진행성 병변 1예(2.2%)이었으며, 국소요법후 완전관해 31예(69.2%), 부분관해 11예(24.2%), 안정성 병변 및 진행성 병변 각각 1예(2.2%)씩 있었다. 양군 간에 선행약물요법 및 국소요법에 대한 관해율의 유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($P>0.05$).

4) 대상환자 전체의 4년 진행정지 생존율은 34.5%, A군은 43.4%, B군은 24.0% 이었으며, 전체환자의 4년 전체 생존율은 39.4%, A군은 56.8%, B군은 25.5%로서 양군간에 생존율의 유의있는 차이는 없었다($P>0.05$).

5) 양군 모두에서 세포형, T 및 N 병기에 따른 진행정지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의 유의있는 차이는 없었으며, 비인강암에서의 진행정지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은 다른 원발부위암에서보다 유의있게 높았다($P<0.01$).

6) 재발 부위는 국소재발이 15예, 원격전이가 7예였고 양군사이에 재발양상의 유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($P>0.05$).

7)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모두 수용할만한 정도였으며, 비가역성 부작용은 없었다.

이상의 결과로 유도화학요법 및 국소요법후 시행하는 보조화학요법은 생존율 및 재발율에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으며, 향후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시 또는 교대 화학 및 방사선 병용요법등을 사용하는 복합치료요법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